

# 첨단부품소재 융합전공...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키워낸다

**G&J RIP**  
 지역미래 이끄는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1)대학교육혁신

독일 선진기업 연수 실무 체험  
 교과·비교과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전공·취업 역량 강화 중요한 역할



이상현 본부장

주 산업에 사용될 첨단소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2022년 2학기부터 첨단부품소재 융합전공에 참여했다. 2년 여 동안 18 학점을 이수, 전공지식을 넓힌 김씨는 2023년 독일 해외 선진기업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씨는 독일의 첨단 산업 현장을 직접 탐방하고 다름슈타트 공대 재학생과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독일 유학을 결심했다.

그는 "이차전지 관련 전시회 참관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전공과 취업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첨단부품소재 융합전공은 여러 대학과 학과 학생이 참여하는 특성상 주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학생 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제한했다. 생명화학공학과에서 고분자를 전공한 김씨는 융합전공 교과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학사관리시스템(LMS)을 통한 지도교수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업체에서 제작된 질 높은 온라인 콘텐츠

광주·전남 1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재정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5차년도 마지막 사업연도를 맞아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의 우수성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분야별 우수 사례를 4회에 걸쳐 소개한다.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본부장·이상현 전남대 교수)의 첨단부품소재 융합전공이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최신 실무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대학교육혁신본부는 첨단부품소재 산업의 융복합 지식과 능력을 갖춘 혁신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 선진기업 연수를 통해 학생들이 최신 기술 동향을 학습하고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대표적이다.

조선대 생명화학공학과 출신 김별두리씨는 우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가 운영하는 '첨단부품소재 융합전공' 참여 학생들이 3D프린팅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독일의 '스트라타시스(Stratasys)'를 방문해 현장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제공>

를 반복 학습하며 전공 이해도를 높였다.

결국, 김씨는 조선대 생명화학공과 주전공과 첨단부품소재 융합전공 부전공의 지식을 융합, 독일 명문대인 뮌헨공대 재료공학과 대학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이는 광주전남지역혁신 융합전공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전공 지식을 갖춘 인재 육성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의 하나다.

김씨의 성공에는 독일 체험 기회를 제공한 것과 함께 자신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독일 우수 대학 방문과 현지

학생과의 인터뷰는 독일 유학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했으며,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는 전공에 대한 이해와 취업 역량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는 "이번 사례는 첨단부품소재 융합전공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다학제 간 협업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융복합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

속적으로 개발, 지역 산업에 적합한 인재를 꾸준히 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이상현 본부장은 "첨단부품소재 융합전공의 성공적인 운영은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프로그램의 발전을 지향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학교자원이 지역민 위한 상생의 열린 공간으로

광주시교육청, 구 경양초 부지에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개관 스포츠클라이밍·체험장 등...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호응'도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자원을 공유하며 지역민과 상생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명절에는 학교 주차장을 개방해 귀향민의 편의를 돕고, 평상시에는 학교 강당과 운동장을 인근 지역민에게 열고 있다. 학교를 학생은 물론 지역민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이점선 시교육감의 철학이 반영된 정책의 하나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구 경양초등학교 부지에 세워진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가 최근 문을 열었다.

이 센터는 시교육청에서 참여한 '생활SOC 학교 시설 복합화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도심 속 학교 공간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첫 사례여

서 주목받고 있다.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는 총 133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170.1㎡,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다. 센터는 스포츠클라이밍, 가상현실 체험장, 영유아 놀이방, 문화예술공간, 돌봄공간, 교원 연구활동 공간 등으로 구성돼 모든 연령대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교원 연구공간인 '교사성장마루'는 수업성장, 나눔, 연구활동, 소통, 힐링 등의 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광주시교육청이 선정되면서 일곡중학교도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탈바꿈하게 됐다.

일곡중학교에는 복합커뮤니티 교실과 마을온실, 맨발 산책로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광주 북구에서 지역민의 문화·예술·체육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부지를 구하지 못하자, 경양초 이전으로 비어있던 부지와 공사비 25%를 지원해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했다.

2028년 3월 개교하는 신가2중학교에도 청소년 문화센터와 체육관이 들어선다.

시교육청의 '열린 학교' 정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교육청은 꾸준히 자치구 등과 협의를 거쳐 북구 3개교, 서구 8개교, 광산구 2개교 등 총 13개 학교의 주차장 311면을 공유해 약 4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 평일에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말·공휴일은 24시간 개방하면서 골목길 주차난에 시달리던 지역민의 어려움이 일정 부



이점선 광주시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문인 북구청장 등이 지난 20일 광주시 북구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개관을 기념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분 해소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매년 명절이면 교육청 본청, 지원청,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주요 기관, 학교 등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개방이 가능한 학교의 강당(97.5%)과 운동장(98.3%)을 대대적으로 개방해 시민들이 가

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점선 교육감은 "이제는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는 지역민의 문화·예술·체육공간이 되는 교육공동체 시대"라며 "학교가 학생들만의 공간을 넘어 지역민이 마음껏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열린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보험료 상승의 주범

# 보험금 값어치는

# 기생충이

#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